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09호 [부제 제23061호] 주제99 (2010)년 4월 19일 (월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제2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군중예술부문 종합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제2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군중예술부문 종합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공연을 보게 된 관람자들은 끝없는 감격과 환희에 넘쳐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는 전체 관람자들은 정력적인 선군혁명령도로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뜻과 념원을 이 땅위에 찬란히 꽃피우시며 김일성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영춘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인 조선인민군 대장 김정각동지를 비롯한 군대

와 무력기관의 지휘성원들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최태복동지, 김기남동지, 부장들인 김경희동지, 장성택동지, 김영일동지, 김양건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책임간부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여러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예술소조원들과 예술선진대,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이 출연한 공연무대에는 합창 <충성의 노래>, 선동과 노래 <김일성대원수 만만세>, 이야기와 노래 <하늘처럼 민고 삼니다>, 대화시 <장군님의 비날론>, 여성3중창과 방창 <은 나라의 대경사로세>, 시랑송 <나는 로동자의 아들이다>, 녀성독창과 방창 <발같이노래>, 농악무와 북제창 <흥하는 내 나라>, 선동극 <차표>, 소합창 <영원한 태양의 봄>, <당은 장군님의 품>, 시와 합창 <돌파하라 최첨단을> 등 여러가지 형식의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렸다.

공연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만대에 길이 빛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마음껏 누려가는 우리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격조높이 노래하였으며 강성대국의 명마루를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기상과 역센 기개를 잘 보여주었다.

또한 출연자들은 혁명적열정과 풍만한 정서가 넘쳐흐르는 공연을 통하여 눈부시게 개화발전하는 선군시대 군중문화예술의 위력을 힘있게 파시하였다.

관람자들은 태양민족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넘쳐나는 공연을 보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 아래 력사의 준엄한 시련을 헤치고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자주의 항로를 따라 억세게 전진하여온 자랑찬 승리의 로정을 뜨거운 격정속에 돌이켜보았으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따라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기어이 완성하고야말 굳은 결의를 다짐하였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열화같은 흥미의 정이 뜨겁게 끓이치는 격동적인 공연은 관람자들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장내는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지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답례를 보내시고 공연성가를 축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출연자들이 정적적대가 뚜렷하고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을 그대로 반영한 사상예술성이 높은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연성가를 높이 평가하시고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모든 출연단체들에서 자기들의 투쟁과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한 특색있는 공연을 하였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예술을 대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그대로 보여주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온 나라 인민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진행된 제2차 인민예술축전은 어버이수령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받들어모시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타는 지향과 념원이 전인민적송가로 울려 퍼진 뜻깊은 축전무대였으며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무한한 힘과 용기를 안겨준 의의 깊은 계기로 되었다고 하시면서 수령의 노래, 혁명의 노래로 4월의 봄명절을 특색있게 장식하는데 크게 기여한 전체 축전참가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근로인민이 참다운 예술의 창조자, 향유자로 되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진정한 예술은 인민대중의 투쟁과 생활속에 있으며 혁명적예술은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감동시키고 그들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혁명투쟁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위력한 수단으로 되고있다고 하시면서 군중문화예술의 강화발전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력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래양절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제10215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래양절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제10215군부대예술선전대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뜻깊은 래양절날에 경애하는 장군님께 자기들의 공연을 보여드리는 무한한 영광과 행복을 지닌 예술선전대원들의 가슴은 격정의 파도로 세차게 설레이고있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관람자들은 정력적인 선군혁명령도로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 위업을 빛나게 실현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인 조선인민군 대장 우동충동지, 조선인민군 대장들인 김원홍동지, 현철해동지를 비롯한 군대의 지휘성원들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최태복동지, 김기남동지, 부장들인 김경희동지, 김양건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의 책임간부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예술선전대원들은 5인시 <김일성장군찬가>, 노래편곡 <만경

대의 노래>, <당은 장군님의 품>, 실화극 <영원한 보위자의 심장>, 녀성독창 <장군님이 그리워>, 녀성2중창과 남성4중창 <전선에서 만나자>, 혼성4중창 <사랑은 내 조국에 중요한 원수에게>, 바스기타와 노래 <천리마 달린다>, 시와 합창 <남산의 푸른 소나무> 등 여러가지 형식의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공연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백두령장의 손길아래 수령옹위의 제일결사대, 천하무적의 강군으로 억세게 자라나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온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자랑찬 투쟁행로와 조선로동당의 로속하고 세련된 령도따라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우리 당과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들을 묵숨 바쳐 사수하며 강성대국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무장으로 굳건히 담보해갈 인민군군인들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또한 출연자들은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상이 나래치는 공연을 통하여 군인들의 심장마다에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 대한 불타는 사랑을 심어주며 선군시대의 나팔수로서의 성스러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는 군인예술인들의 위력을 힘있게 파시하였다.

혁명적군인정신이 도도히 맥박치는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군부대예술선전대원들이 우리 군인들의 무한대한 정신력을 그대로 반영한 인식교양적의의가 큰 훌륭한 작품들을 가지고 공연을 참신하고 전투적으로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연성가를 높이 평가하시고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예술선전은 군인들의 사상교양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예술선전활동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력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만수대에술단의 공연을 관람하신 소식을 7일 라오스통신이 보도하였다.

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총비서께서는 공연이 끝나자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답례를 보내시며 공연성가를 축하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만수대에술단의 예술인들이 정적적대가 뚜렷하고 인민의 지향과 념원을 그대로 반영한 사상예술성이 높은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연성가를 높이 평가하시

고 전체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만수대에술단이 창립후 오늘날까지 조선로동당의 문예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특색있는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창작공연함으로써 주체예술발전이 크게 공헌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고 하시면서 지난 기간 그들이 이룩한 자랑찬 성과를 높이 치하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13일 중국의 신화통신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김일성종합대학에 새로 건설된 전자도서관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의 김정일최고령도자께서 자라나는 세 세대들을 나라의 역군으로 키우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중국의 홍콩 <대공보>와 봉황위성TV방송, 체스코주체사상연구 및 구현소조와 백두산체스프조전선협회 인터넷공통홈페이지 <조선-백두산>도 13일과 14일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신문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개건된 향산호텔을 현지지도하시는 사진을 모시였다.

중국의 <한구시보>, <신화매일신문>은 14일과 15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김일성종합대학에 새로 건설된 전자도서관을 현지지도하시는 사진을 모시고 이 소식을 전하였다.

네팔신문 <고르카 엑스프레스> 3월 30일부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인민군 해군 제587번함부대 지휘부를 시찰하신 소식과 개건된 향산호텔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보도하였다.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 결성식

제네바에서 진행

【평양 4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태양절에 즈음하여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 결성식이 10일 제네바에서 진행되었다.

스위스의 주체사상신봉자들이 결성식에 참가하였다.

결성식에서는 스위스조선위원회 위원장인 마르틴 뢰체르가 소조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인민들에게 나아가갈 길을 환히 밝혀주는 지도적지침이다.

우리는 위대한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깊이 연구하고 스위스인민들속에 널리 소개전하기 위하여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주체사상연구소조를 결성하게 된다.

소조는 앞으로 자체의 인터넷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거기에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저작들, 선군령도업적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상적으로 올려주며 주체사상소개선전활동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벌임으로써 스위스의 각계층 인민들속에서 주체사상신봉자대렬을 늘리고 소조를 확대해나갈것이다.

결성식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울리는 전문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었다.

본사기자

